

#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

이덕수\*

\*한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e-mail:dslee@halla.ac.kr

##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social contribution of public institutions

### - Focusing on empirical data -

Deok-Soo Lee\*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Halla University

#### 요약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서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연루된 환경, 인권, 부패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국제적인 비판여론과 불매운동을 야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1]. 특히 국내에서는 지방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도심과 이전한 공공기관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정의하면 ‘기업이 축적·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모든 비영리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시혜적 차원에서 비용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현재는 사회와 가치를 동반 성장시키는

투자개념으로 변화되어 국민인식의 대변화를 동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즉 과거 공급자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던 사회공헌 활동이 지금은 수혜자 니즈(Needs)에 기초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이 성숙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재무적 지표 이외에 기업의 사회성, 윤리성, 환경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척도가 형성되고 있다[2].

그 결과 오늘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과거 기업이윤의 단순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자선, 기부활동 또는 준법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모색이 필요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지역사회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결핍요인을 찾아내고 그들의 니즈 또는 수요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3]. 즉 고객(국민)은 기업의 기반이자 존재의 근거로서 기업 목표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고객창조(Customer Creation)에 있고 기업이익은 기업 지속가능성의 필요조건이며 기업이익의 사회공유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현황을

살펴보고 공기업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작은대학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 사회공헌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사회공헌에 관한 이론적 배경

### 3.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실증 사례

#### 3.1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 3.2 전력거래소

#### 3.3 우정사업본부

##### 3.3.1 도입배경

우정사업본부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우체국 작은대학’ 운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배경은 글로벌 기업의 사회공헌 트렌드 중에서 ‘생존에서 생활로’ ‘혼자에서 함께’ ‘Output에서 Outcome으로’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위치하고 있는 우체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통한 우체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각 지역내 소외계층에게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8년부터 도입하였다.

##### 3.3.2 서비스 내용 및 운영 현황

‘우체국 작은대학’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체국 또는 지역별 공공임대아파트의 교육장(이동우체국 작은대학)을 활용하여 가가 프로그램 전문강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요자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동우체국 작은대학’은 주택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교육장을 활용하여 해당 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작은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3.3.3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우체국의 자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공유복지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실시 첫해인 2018년에는 72개소였으나 2019년 현재는 이동우체국 작은대학을 포함하여 총 107개소의 우체국 작은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긴밀한 협조와 해당지역의 관련기업과 대학 등 전문가 집단

을 통한 재능기부 강사진 확보를 통해 지역 수요조사 및 선호도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표 1] 공공임대아파트 현황

| 구분      | 갯수  | 구성비율(%) |
|---------|-----|---------|
| 영구임대APT | 126 | 40.6    |
| 국민임대APT | 140 | 45.2    |
| 공공임대APT | 44  | 14.2    |
| 계       | 310 | 100.0   |

\* As of March 2019

[표 2] 입주자 구성현황

| 구분      | 호수      | 구성비율(%) |
|---------|---------|---------|
| 영구임대APT | 140,884 | 54.9    |
| -기초수급자  | 84,656  | (60.0)  |
| -한부모가정  | 1,919   | ( 1.4)  |
| -새터민    | 888     | ( 0.6)  |
| -기타     | 73,379  | (28.6)  |
| 그 외 APT | 115,695 | 45.1    |
| 입주자 전체  | 256,579 | 100.0   |

\* As of March 2019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주택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력 MOU를 체결(2019년 2월22일) 하여 우체국 작은대학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MOU 체결기관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MOU 체결시 협력사항으로는 영구임대 아파트내 우체국 작은대학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운영을 위한 IT 관련 강사를 지원하고 ‘만원의 행복보험’ 등 저소득층 대상 우체국 공익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홍보 등 업무에 상호협력하는 것이다.

## 4.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1] I. Y. Park, “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Korea Policy Studies, Vol. 13. pp.74-87, 2013
- [2] C. S. Ahn, J. A. Son,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Demend Analysi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Korea Policy Studies, Vol. 15. pp.19-40, 2015